

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Camdessus 전 IMF 총재 강연

1. Camdessus 전 IMF 총재(현 프랑스 중앙은행 명예총재)는 지난 5월 31일 프랑스 국제문제연구기관인 미래포럼(Forum du Futur) 주관 하에 'G9 정상 회의와 아프리카(L' Afrique a Gleneagles, Sommet du G8)' 제하로 조찬 강연회를 가진 바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금년 G8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의 Blair 총리는 1년 전 '아프리카를 위한 위원회(Commission for Africa)'를 설립,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, 동 위원회는 최근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(동 보고서는 G8 공식 웹사이트 www.g8.gov.uk에서 다운로드 가능).
- 상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한 Camdessus 전 IMF 총재는 아프리카 위원회가 권고한 정책들이 2005년 7월 6일~8일간 스코트랜드에서 개최될 G8 정상회담 및 9월 UN 총회, 12월 도하라운드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프리카 대륙

이 그간의 혼돈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, 2000년 밀레니엄 선언에서 선진국들이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이 아프리카 지원에 선진국들이 나서야 할 적기라고 강조함.

-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1년 NEPAD(New Partnership for Africa's Development)를 채택하고 그중 일부 국가는 경제발전, 민주화 및 Governance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바, 그간 논의되어 온 부채탕감과 더불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.

-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사회 기반시설 구축에 매년 250억불의 재원이 필요하며, 선진국들은 이러한 재원부담을 위해 GDP 0.7%까지 지원금액을 늘려야 함. 이러한 지원 성과를 2010년에 재평가하여 2015년까지 매년 250억불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함.

※ 영국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각

국가의 경제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, 프랑스는 각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AIDS 퇴치 및 아프리카 지원 재정 조달을 위해 국제 항공권 1매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(일명 국제항공세) 등을 제시, 지지 확보 노력 중임을 설명함.

- 상기 재정지원과 더불어 Doha 라운드의 성공 및 아프리카 농업 주요 수출상품인 면화, 설탕 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세 인하와 더불어 선진국들의 자국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해 나가야 함.

2. Camdessus 전 IMF 총재는 아프리카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식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그간 정부 대 정부 간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식수 등이 필요한 마을에 직접 식수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. 강연 후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모범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 Camdessus 전 총재는 모잠비크가 최근 10년간 매년 8~9%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나, 이디오피아, 니제르, 말리, 베냉 등의 국가들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밝힘.

[자료:주프랑스 대사관]